

체육 열기로 들끓는다

— 평양시 체육촌에서 —

풍치수려한 보통강변에 위치한 평양시체육촌은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며칠전 일요일 우리는 체육 열기로 들끓는 이곳 체육촌을 찾았다. 우리와 만났던 인군은 평양시체육촌에서 근로자들에게 대중체육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요일과 명절날같은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체육 경기와 운동을 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인공잔디를 입힌 야외 축구경기장에서는 축구경기가 한창이었다. 알고보니 평양 치과위생용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 사이에 진행되는 축구경기였다.

물결모양의 채양을 띄운 야외축구경기장의 관람석에

서는 두 공장 종업원들이 자기 공장선수들을 응원하느라 떠들썩하고있었다. 저도 모르게 우리도 두 공장 선수들의 축구경기에 끌려들었다.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선수들이 완강한 방어와 불의적인 역습으로 상대팀을 위협하는가 하면 평양화장품공장선수들은 중간 지대를 장악하고 측면돌파로 득점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일진일퇴의 공격과 방어가 이어지던 속에 평양화장품공장선수들이 먼저 득점하였다. 하지만 상대팀선수들도 만만치 않았다. 잃은 점

수를 회복하기 위해 총공격에 나선 상대팀선수들은 마침내 제지되는 머리받기로 한점을 올려 경기는 1:1로 비긴 가운데 끝났다. 경기 종료 후 평양화장품공장의 한 인군은 《우리 공장 선수들의 축구실력이 많이 발전한것이 알린다.》고 하면서 대중체육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자기 공장선수들의 체육실력이 높아져 축구면 축구, 룡구면 룡구, 배구면 배구 어느 종목에서나 다른 공장들에 못지 않다고 자랑하였다. 응원에 여념이 없던 해운 2동의 한 주민은 《직장에

서도, 인민반에서도 늘 체육 열기로 들끓으니 몸과 마음도 젊어지고 청춘의 기백이 넘친다.》고 하면서 대중체육이 정말 좋다고 하는 것이었다. 즐거운 웃음속에 그의 말을 들으며 탁구훈련장에 들러니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탁구를 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한 모습은 정구장, 바드민턴장, 체육오락실들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종합적인 체육문화시설들을 그르니 갖춘 대중체육용 사기지인 평양시체육촌, 이곳은 축구, 배구, 룡구 등을 하며 회열과 랑만에 넘쳐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수많은 남녀로소들로 흥성거렸다.

본사기자 김진혁



러명거리에서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각지에서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국토환경보호성에서는 나무심기를 대중적으로 벌리고 도로관리사업을 개선하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과 강화청정리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도록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두고있으며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도를 적극 따르세 우고있다.

남포시에서는 시내중심으로의 랑역로 특색있는 화단들을 새로 조성하여 거리를 아

름답게 단장하도록 하고 나무심기와 잔디밭꾸기사업을 즐기게 내밀어 도시의 면모를 나날이 일신해가고있다. 특히 평양시에서는 지대정리와 복지조성, 보도블록들을 질 좋은 색보도블록들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평안북도에서는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면시킴 예극의 마음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창성이랄 나무, 참대수드나무, 밤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한편 회령시에서는 여러 다리를 개건하거나 새로 건설하고 령길은 물론 평지길의 급한 굽이돌이구간들에 반사거울과 안전간들을 새로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를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 늘어나는 수송 수요와 인민들의 생활편의를 더 잘 보장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본사기자



사회가 발전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생활과 경제발전에서 산업미술은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개막된 국가산업미술전시회는 수많은 참관자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다. 얼마전 이곳 전시회장을 찾은 우리에게 중앙산업미술지도국의 한 인군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빛내이는 주체적산업미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회에 조선산업미술창작사,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 산업미술대학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창작한 도안들과 실현제품,

모형 등이 출품되었다고 말해주었다. 1층 전시회장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하여주신 270여점의 도안과 860여점의 가치있는 산업미술도안들이 4개 구역에 전시되어있었다. 안앞에서 걸음에 떼지 못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청년대학생을 만났다. 그는 고숙전동차형태도안을 보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지혜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높아진다

적인 수확을 거둘수 있도록 착상된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일상생활에 리용되는 갖가지 필수품도안들과 가구비품도안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실용성과 특색을 살린 훌륭한 도안들이라고 하였다. 인민들의 고상하고 문명한 정신도덕적품모와 생활기풍이 안겨오는 의상, 방직도안들과 사람들의 생활상편리를 도모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고도안들도 특

색한 것이 있었다. 전시회기간 수많은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이곳을 참관하였는데 이것은 나날이 높아아가는 산업미술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전시회장의 2층에는 《소나무》, 《철쭉》 등의 상표도안들과 함께 그에 따르는 제품들도 전시되어있었다. 제순으로 그린 행복의 설계도들이, 제힘으로 마련한 창조적 열매들이 가득차있는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들먹이였다.

본사기자 강류성

주체적산업미술의 발전면모를 과시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고 말하였다. 이밖에도 전시회장에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도 안들도 많이 전시되어있었다. 특히 강병이종합수확기 도안은 비탈밭을 비롯한 여러 지형의 밭에서도 효율

을 발휘한다. 이밖에도 전시회장에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도 안들도 많이 전시되어있었다. 특히 강병이종합수확기 도안은 비탈밭을 비롯한 여러 지형의 밭에서도 효율

을 발휘한다. 이밖에도 전시회장에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도 안들도 많이 전시되어있었다. 특히 강병이종합수확기 도안은 비탈밭을 비롯한 여러 지형의 밭에서도 효율

축구꼴문 그들의 유래

오늘과는 달리 지난날의 축구경기장에서는 그들이 없던 꼴문대를 세워놓고 시험을 하였다. 1905년 영국 런던의 어느 한 축구경기장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두 팀사이에 득점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공격을 한 팀은 분명 골을 차넣었다고 하고 방어를 한 측에서는 골이 꼴문안으로 빠진것이 아니라 문대를 스치고 지나갔다고 고집하였다.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관람석에서는 또 구경꾼들끼리 눈감박할 사이에 벌어진 일을 놓고 서로 열들을 올리고

있었다. 이때 관람석에서 한사람이 이렇게 소리치는것이였다. 《여러분! 방법이 있소. 좋은 방법이 나에게 있소.》 그는 어구공장 주인이였다. 얼마후 자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고기잡이용그물을 안고 나타난 그는 잠간사이에 그것을 꼴문대에 쳐놓았다. 이내 경기는 다시 시작되고 득점을 착각하는 현상은 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국제축구련맹은 정식으로 축구꼴문에 그물을 쳐도록 결정하였다. 본사기자

목은 메밀, 룡두, 강병이, 도토리 등을 땅에 갈아서 얻어낸 동마를 익혀서 식힌 음식이다. 만든 재료에 따라서 메밀 룡두, 룡두, 강병이, 도토리 등으로 불렀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봄이나 이른 여름에는 룡두, 가을에는 메밀과 도토리등을 즐겨먹었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룡두를 잘게 썰어 소고기볶음, 미나리나물, 김을 두고 초장으로 무친 룡두볶음을 탕채라고 불렀다. 오늘날 목은 만들기 간편하고 매끄러우면서도 소화기 잘되며 맛이 좋아 누구나 즐겨먹는 음식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설대목 진상품으로도 최상등인 참새구

본사기자

사화

《평양재사》 (3)

글 리 빈, 그림 리성일

김선달은 청찬에 겸손히 사의를 표한 뒤 《이번에는 평양방법을 아뢰겠소이다.》하고 다음 장을 펴나갔다.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려달이던 평들은 먹이를 찾지 못해 죽을 지경에 이른다. 이때를 틈타서 길마를 지운 소잔동에 빈 용구를 엮고 평이 많은 산골안으로 들어간다. 소를 매놓고 그 들레에 큰집안마당만큼 풍각지를 쭉 퍼놓는다. 그 다음 평의 대가리를 들어칠수 있게끔 밭갈이만 한 쇠망치를 소피리에 달아매놓고 사람을 집으로 돌아와버린다. 주린 평들이 풍각지우에 새까맣게 내려앉아 정신없이 먹이를 찾을 때 소는 버릇대로 꼬리를 자꾸 이리저리 흔드는데 그때마다 꼬리끝의 쇠망치가 평대가를 뺨뺨 때리게 된다. 쇠망치에 풍통을 얻어맞은 평은 정신이 아찔해서 푸드득! 날아올랐다가 숨이 끊어지면서 내리떨어지는 족족 소잔동의 빈 용구속에 구겨박히곤 한다.

하! 하!... 만장에 또 웃음이 터졌다. 저마다 찬찬을 금치 못해하였다. 《들오리사냥보다 수가 높다!》 《들오리한테서 손을 떼구 산짐을 찾아가세!》 《그 만장짜리 범수를 저 혼자 감춰놓고 썩으면 평만 팔아먹어도 큰 거부가 될러인데 저 김선달이 재산모으기가 싫은게로군. 이리해서 다 털어놓구...》 《하! 하!...》 여럿을 따라 함께 웃던 황해강사가 김선달의 어깨를 대견히 두드리며 《이 사람 평양재사, 자네 것처럼 자꾸 묘수를 꾸며놓다가 내 이 구실상을 몽땅 팔아 들어밀어 두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네. 난 이젠 그만쯤 웃었으면 넉넉하니 재발 빚쟁이랑 만들지 말게.》하고 집짓지 먹은 근심을 보여 또 한바탕 크게 웃었다. 김선달이 선선히 대답하였다. 《소인한테 진 빚을 갏자

아 미친듯이 쏘다니다. 참새란 높은 잠적한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은데가 적지 않은 물건이다. 《약은 교양이 밤눈이 어둡다.》고 하지 않는가. 사양에서는 마땅히 이 점을 노려야 성공할수 있다. 손바닥만큼 큰 가랑이 (더 크면 더욱 좋고) 한삼태기를 물에 추겨 반듯이 편 다음 독한 술에 잠겼던 짐살을 멀건 찹쌀풀에 버무리기 시작한다. 그동안 따뜻한 봄볕에 찹쌀풀을 먹인 가랑이는 마르면서 오그라드는데 그속에서 취한 참새는 꼼짝 못하고 갈라지고간다. 이런 때 사람이 할 일이란 고작해서 갈퀴 하나를 들고 생참새가 고기소로 들어있는 가랑이만두를 술술 긁어모아 더미를 쌓고 모닥불을 놓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면 설대목 진상품으로도 최상등인 참새구

이가 되오이다. 산삼이 좋구 룡목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 참새구이만 한 댓개 자시면 찹쌀로인도 부인결에서 멀어지지 못하네.》 (끝)

